

##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에 관한 질적연구\*

박 경 은

세명대학교

유 영 권†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이 정신적 폭력에서 시작해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 수위가 높아지는 데이트 폭력 가운데 어떠한 심리내면의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데이트폭력을 경험해 본 피해여성 17명을 인터뷰하여 근거이론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27개의 개념과 51개의 하위범주, 21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인과적 조건에는 ‘폭력연애가 의아함’과 ‘당황함’, ‘혼란 중에 좋음’과 ‘폭력이 무서움’, ‘이별이 무서움’이 도출되었으며, 맥락적 조건에는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과 ‘폭력에 대한 수용성’이 도출되었다. 중심현상은 ‘비정상적인 사랑을 경험함’으로 도출되었다. 중재적 조건에는 ‘폭력경험 수준’, ‘폭력대처 수준’, ‘관계몰입도 수준’이 도출되었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에는 ‘남자친구에게 몰두하기’, ‘남자친구에게 대항하기’, ‘사람들에게서 물러서기’, ‘폭력대처를 위해 대안 찾기’, ‘자신의 소망을 상상하기’, ‘좋았던 때를 기억하기’, ‘남자친구와 단절하기’가 도출되었으며, 결과에는 ‘그리움’, ‘안도감’, ‘두려움’, ‘무덤덤’이 도출되었다. 핵심범주는 ‘고통스러운 사랑의 미로를 지나 모순된 감정을 확장 또는 축소해 나가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에 기여한 다양한 요인들이 체계적 관점에서 내사되어 상호작용한 것임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데이트폭력, 피해여성, 심리내면, 체계적 관점, 상호작용

\* 본 연구는 박경은(2017)의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적 변화과정’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유영권,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 02-2123-2919, E-mail : you@yonsei.ac.kr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3만 6,362명에 달한다. 2010년 371명을 시작으로 2011년 388명, 2012년 407명, 2013년 533명, 2014년에는 678명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경찰에 신고 되지 않은 피해자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간 약 7천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 목숨까지 잃은 사람은 290명에 달한다(서울=뉴시스, 2015.9.7). 성폭력, 가정폭력에 이어 데이트폭력은 오늘날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은 주로 20대 여성들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대 여성의 75.2%가 한번 이상 데이트폭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오세연, 곽영길, 2011). 20대 여성에게 데이트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미혼상태의 여성이 대부분 20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혼상태에서 이뤄지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미혼상태에서 이뤄지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데이트폭력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최근에는 여성의 결혼 평균 연령이 높아짐과 동시에 혼인유무와 상관없이 20대 이상의 여성들 또한 연인관계 속에서 데이트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데이트폭력은 그 심각성이 간과되어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차원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성폭력방지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이라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성적 폭력 등의 물리적 증거물이 확보될 수 있

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폭력범죄를 적용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폭력은 결혼을 통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관계가 아닌 경우 비교적 허용적인 분위기속에 그 심각성이 간과되어져 왔다. 문화적 차원으로 낭만적인 사랑에서 남성은 터프한 이미지를, 여성은 가녀린 이미지가 부각되어 남성의 폭력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거나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는 것이 애뜻하고 아름답게 여겨지는 문화적 이상 현상이 있어 왔다(정운주, 2008). 또한 남성이 보이는 폭력적인 행동이 어린 시절 해결되지 못한 다양한 심리적 상처들로 인한 것임이 부각되어 폭력이 미화되고, 그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여성의 이미지가 따뜻하고 아름답게 포장됨으로 피해여성들의 폭력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곧 이러한 문화적 현상이 피해여성들에게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거나, 따뜻함과 치유력을 가진 여성의 이미지를 대입해 폭력의 피해를 일축시켰다.

개인적 차원으로 폭력적인 관계가 시작된 이후에 이성교제를 중단하지 못하고 지속하게 되는 피해 여성의 개인내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을 살필 필요가 있다. 피해여성은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애착유형 및 내적작동 모델에 따라 갈등 및 폭력에 대응해 나가는 방식을 형성한다(김광은, 이위갑, 2005; Kline, 2009). 또한 폭력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피해여성은 자신이 폭력에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폭력을 잘 견디어 내면 더 좋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다. Handsel(2007)은 이를 낙관적 편향(Optimistic Bias)이라고 했으며, 이정은(2007)은 이타적 망상(Altruistic Delusion)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연인관계에서 이뤄지는 폭력을 주변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피 행동을 보이며(De Hooge, Zeelenberg, & Breugelmans, 2010, 2011), 이는 의 피해가 간과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일조한다.

관계적 요인으로 피해여성은 남자친구의 폭력과 사과, 그것을 용인하고 용서하는 관계패턴을 지속한다. 또한 교제 기간이 길고 친밀감이 깊어짐에 따라 남자친구의 폭력을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양식이 굳어져 폭력의 피해를 쉽게 드러낼 수 없게 된다. 이것은 피해여성이 심리내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충족하길 원하는 친밀감, 소속감, 안정감 등이 다른 대상에게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이 줄어든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의존이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Agnew, 2009; Rusbult, Coolsen, Kirchner, & Clarke, 2006). 또한 폭력에 대한 수용성(Acceptability)은 폭력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Kaura & Lohman, 2009). 피해여성은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의 만족도를 보이는데, 어려서 가정폭력에 많이 노출된 여성은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윤경, 2012; 박하나, 장수미, 2012; 신혜섭, 2006; 김옥수, 2005; 유선영, 2000; Kaura & Lohman, 2009).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은 다양한 심리적 후유증을 보고한다. 데이트폭력 이후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비롯해(Walker, 2012, 2006) 심한 우울과 불안의 부정정서를 경험할 확률이 높고, 두려움과 슬픔, 죄책감을 느끼며,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비롯해 타인과 세상에 대한 비판의식이 심화되어 회피적인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Campbell & Kendall-

Tackett, 2004; Sable, Danis, Mauzy, & Gallagher, 2006). 이렇듯, 데이트폭력 이후에 부정적인 심리내면의 상태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후유증을 피해여성을 둘러싼 개인적, 관계적, 사회적 역동의 상호작용 속에서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폭력적인 관계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었던 여성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데이트폭력을 각기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하여 관계의 변화를 경험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에서와 같이 데이트폭력을 하나의 부정적 사건으로 규정하여 그것의 부정적 심리내면의 영향을 연구하였던 한계에서 벗어나,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피해여성의 다양한 역동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데이트폭력의 핵심은 힘을 가진 존재가 그렇지 않은 존재에게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Amar & Gennaro, 2005; Teen Voice, 2006). 이러한 힘의 논리를 간과할 때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적 변화과정을 심도 깊게 이해하는데 한계가 뒤따른다. Poling(1999)은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폭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힘의 남용(abuse of power)의 결과로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가부장적(patriarchy) 인식과 제도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과 아동을 희생자로 만들어 왔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사회적 악이 가정을 통해, 가정이 답습한 악이 한 개인을 통해 힘의 악용이 실현되고, 그 결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지속된다고 보았다.

데이트폭력은 이성교제 중에 있는 상대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말한다(Straus, 2004). 데이트폭력의 각 범주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통제와 간섭이 주를 이루는 정신적 폭력에서 시작이 된다. 정신적

폭력은 다른 종류의 폭력보다 정신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McLewin & Muller, 2006). 특히 성인 초기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폭력은 신체적인 것보다 정신적 폭력이 훨씬 더 많으며(Karakurt & Silver, 2013), 남성에 비해 여성이 해가 더해 갈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Lewis & Fremouw,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언어적 폭력은 피해의 사실이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폐해가 간과되어져 왔다. 실제로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이제까지의 연구들(강효진, 2009; 서경현, 2008; 이영숙, 1998; Graves, Sechrist, White, & Paradise, 2005; Makepeace, 1981)은 신체적, 성적 폭력만을 데이트폭력의 범주로 인정하였다. 이것은 정신적 폭력으로 인한 영향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간과되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통제와 간섭을 통해 힘을 행사하려는 데이트폭력의 영향을 초기과정에서부터 드러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의 범주를 각기 다른 차원으로 분류함으로 폭력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각 범주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수위가 높아져간다는 점을 드러내지 못했다.

신체적인 폭력보다 정신적인 폭력이 더욱 심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데(Follingstad, Rutledge, Berg, Huase, & Polek, 1990), 이것은 심리내적인 통제력을 상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피해여성의 존재감을 뒤흔드는 데이트폭력은 자기(self)와 관련해 심리내면의 자기존재 인식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Kasian & Painter, 1992), 통제력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정신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Sabina & Straus, 2008; Vitanza, Vogel, & Marshall, 1995).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은 가해남성에 대해 심리적인 애착을 더 많이 갖기 때문에 통제력과 안정감을 상실한 채 위험한 의존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Kasian & Painter, 1992). 더불어, 정신적인 폭력은 신체적 폭력의 전조가 될 수 있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계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Sackett & Saunders, 1999). 반면,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한 여성은 자신 또한 이성에게 정신적으로 가해한 경험이 있으며, 남성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해를 하였다(서경현, 2004). 또한, 피해여성은 이성 선택에 있어 자신과 같이 공격적인 남성에게 이끌리는 성향이 있었다(Dutton, 200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데이트폭력이라는 하나의 사건은 일회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관계의 역동 속에서 새로운 폭력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다. 이성친구와의 관계 갈등이 데이트폭력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과정에 참여한 피해여성의 심리내적인 구조 및 관계적, 사회적 역동에 따라 어떻게 데이트폭력의 경험이 달라지는지, 변화한 경험에 대한 피해여성의 해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데이트폭력을 통제와 간섭이 주를 이루는 정신적 폭력에서 시작해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시적인 범주에 속하는 신체적, 성적 폭력에 대한 피해여성의 반응만을 분석하였던 기존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비가시적 범주에 속하는 폭력의 초기 과정인 정신적 폭력에 대한 피해여성의 반

응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피해여성의 심리내적 변화과정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는 개인내면의 심리구조, 관계적, 사회적, 문화적, 영적 차원의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연관될 수 있다(Graham, 1994). 피해여성의 개인내적인 심리구조는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주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이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형태가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준다. 하지만, 데이트폭력 피해여성과 관련된 기존의 질적 연구들(배수희, 2015; 이화영, 2014; 정윤주, 2008)은 이러한 개인내적인 심리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들의 연구는 거시적 담론으로 한국사회 가부장제 문화가 중심이 된 남성권력의 피해자로 성인초기 여성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있다. 성역할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성인초기 여성은 이성 친구의 폭력을 사랑의 관계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내면화하며 자기비난과 희생으로 폭력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어떠한 사회구조 속에서 구성해 내며, 어떠한 변화과정을 통해 관계를 중단하게 되는지에 대해 거시적 차원의 이해를 제시해 주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의 확장과 조속한 법적지지체계가 필요함이 강조되었지만, 피해여성들의 개인내적 심리구조의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에 관한 질적 연구는 이성 관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에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데이트폭력 피해여성과 관련된 이제까지의 연구는 사회복지학, 범죄학 등에서 주로 이뤄져 왔고, 심리

학, 상담학과 관련된 질적 연구 결과들은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심리내면을 깊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여성을 임상현장에서 만났을 때 이들의 심리내면은 분노감, 우울감, 죄책감, 좌절감, 질투심, 안도감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은 데이트폭력을 경험하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피해여성 내면의 심리적 변화 과정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데이트폭력 경험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피해여성의 심리적 구조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심리적 구조가 어떠한 힘의 논리에 따라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심리내적 변화과정을 일으키게 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여성에 대한 반응을 조금 더 조직적이고 과정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을 효과적으로 돕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여성은 수위가 높아져 가는 데이트폭력 가운데 어떠한 심리내면을 경험하는가? 둘째,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에 기여하는 요인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거치게 되는가?

## 방 법

### 근거이론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심리내면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거이론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심리내면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데 이 방법론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배경을 갖고 있는 근거이론은 중심 현상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적 관점을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 둘째,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내면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적합한 이론이 아직까지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이론은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론을 발견하고 생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피해 여성들이 어떠한 심리내면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관한 실체이론을 개발하는데 적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연구의 주된 자료로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에 있어 심층 면담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심층 면담을 위한 사전준비에서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이끌어 내기 위해 Strauss와 Corbin(1998)이 연구 질문으로 제시한 ‘어떻게(how)’와 ‘만약~한다면(if)’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어떻게 관계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그런 데이트폭력이 있었을 때 어떠셨나요?”, “그런 기분이 들면 어떻게 하셨나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친구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만약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데이트폭력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만약 그 친구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요?” 등으로 구성하였다. 예비 연구가 진행되면서 면담 질문을 확장하였다. 추가된 항목들에는 “어떻게 그렇게 바뀌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성친구에게 무엇을 기대했었나

요?”, “그 기대가 달라졌을 때 어땠나요?”, “가족, 친구들과의 갈등은 주로 어떻게 해결해 왔나요?”, “이성친구와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 왔으며,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데이트폭력을 경험할 때 어떤 생각, 마음이셨나요?”,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이후 어떻게 변화되신 것 같은가요?” 등이 있었다. 반구조화된 형태로 연구자는 위의 질문들을 하면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듣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개방코딩에서는 전사된 인터뷰 자료를 반복해서 읽어 나가며, 비교분석을 통해 유사한 개념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냈다. 그 결과, 총 127개의 개념과 52개의 하위 범주, 20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에서는 모아진 개념들과 각 범주들이 각각 어떠한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 범주들의 인과적, 중재적, 맥락적, 작용적 과정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조건에 배치하였다. 선택코딩에서는 각각의 범주들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조직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핵심범주를 밝혀내어 그 상관관계를 서술하였고, 가설적 정형화와 관계진술을 통해 유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준비과정을 거쳤다. 먼저, 연구자는 질적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강의를 세 번 수강하면서 근거이론으로 조별발제 및 페이퍼를 작성하는 가운데 본 연구 방법을 숙지하기 위한 이론적 준비 과정을 거쳤다. 또한, 본 연구를 하기에 앞서 근거이론을 접목한 연구주제로 두 번 논문을 게재한 경험을 쌓았다. 연구자는 약 10년 정도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폭력에 노출된 내담자들을 만나왔으며,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임상 및 연구 자료들을 숙지하는

가운데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민감성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최소 18세에서 최대 32세까지 평균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연령대를 나타내 주었다. 참여자들은 20대 초반인 경우 대학생인 경우가 많았고, 20대 후반은 대학원생이거나 취업 준비생, 직장인인 경우가 많았다. 30대 참여자는 대학원생이었다. 교제 상대는 동갑이었던 경우가 열 명, 연상을 사귀었던 경우가 네 명, 연하를 사귀었던 경우가 세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으로 평균 2년 4개월 교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모두 이별을 하였는데, 자발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거나 가족이나 친구 등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를 할 당시 참여자들은 이별을 한 후 최소 5개월에서 최대 3년 6개월의 시간을 지내 왔었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트폭력을 경험해 왔는데, 열일곱 명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정신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열세 명, 성적 폭력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다섯 명이 있었다. 그 외에 물질적 폭력을 경험한 참여자가 한 명 있었다.

참여자 1은 23세, 대학생으로 1살 연상과 2년 교제를 하였으며, 이별 후 6개월이 지났고,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2는 21세, 대학생으로 동갑과 1년 교제를 하였으며, 이별 후 1년 6개월이 지났고,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3은 21세, 대

학생으로 동갑과 1년 3개월 교제를 하였으며, 이별 후 1년이 지났고,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4는 22세, 대학생으로 동갑과 2년 교제를 하였으며, 이별 후 6개월이 지났고,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5는 20세, 대학생으로 동갑과 1년 4개월 교제를 하였으며, 이별 후 6개월이 지났고, 정신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6는 20세, 대학생으로 3살 연상과 1년 6개월 교제를 하였으며, 이별 후 1년 6개월이 지났고,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7은 29세, 대학원생으로 동갑과 1년 3개월 교제를 하였으며, 이별 후 2년이 지났고,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8는 27세, 취업 준비생으로 3살 연상과 3년 교제를 하였으며, 이별 후 3년 6개월이 지났고, 정신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9는 18세, 학생으로 동갑과 2년 6개월 교제를 하였으며, 이별 후 5개월이 지났고,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10은 26세, 회사원으로 동갑과 2년 교제를 하였으며, 이별 후 1년이 지났고,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11은 27세, 대학생으로 1살 연하와 2년 6개월 교제를 하였으며, 이별 후 6개월이 지났고, 정신적,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12는 23세, 취업준비생으로 동갑과 1년 교제를 하였으며, 이별 후 5개월이 지났고,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13은 29세, 대학원생으로 동갑과 5년 교제를 하였으며, 이별 후 2년이 지났고,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14는 32세, 대학원생으로 1살 연하와 6년 교제를 하였으며, 이별 후 1년이 지났고,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15는 22세, 대학생으

로 1살 연하와 3년 교제를 하였으며, 이별 후 1년이 지났고,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16은 21세, 대학생으로 동갑과 3년 6개월 교제를 하였으며, 이별 후 8개월이 지났고,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17은 27세, 회사원으로 2년 연상과 3년 교제를 하였으며, 이별 후 6개월이 지났고, 정신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은 인터뷰 결과 Straus(1979)의 갈등전략척도 (Conflict Tactics Scales)에서 제시한 평균 3점 이상을 넘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정신적 폭력은 통제와 간섭을 주로 이룬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물리적 힘을 행사하고 위협을 가하며, 피해자의 욕구나 의견을 묵인한다 (Strark, 2007).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경험한 가장 경미한 정신적 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의상 등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입기를 강요하며, 매일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화를 지속적으로 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가장 심각한 정신적 폭력은 가해자가 자해 및 자살 소동을 부리며 헤어지지 못하게 강요하고, 같이 죽자고 하며 위협하게 운전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었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가해자에게 뺨을 맞거나 어깨가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는 등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피해자들이 경험한 가장 경미한 신체적 폭력은 각 티슈 및 신발 등을 피해자의 머리에 지속적으로 던지며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이었으며, 가장 심각한 신체적 폭력은 가해자가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집

단으로 폭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들이 경험한 가장 경미한 성적 폭력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며, 가장 심각한 성적 폭력은 가해자가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신체적 폭력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연구의 주된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온라인을 통해 모집되었다. 연구자는 블로그 및 구인정보 사이트를 통해 데이트폭력을 경험해 본 여성을 모집하였다. 모집 공고에는 데이트폭력의 정의를 비롯해 Straus(2004)가 정의하고 있는 범주에 속한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성적 등의 데이트폭력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성적 폭력 이외에도 데이트폭력의 전조로 나타나는 정신적 폭력을 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통제와 간섭 및 욕을 지속하거나 위협하고 반복적으로 자존감에 손상을 입히며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 더욱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McLewin & Muller, 2006). 연구자는 온라인으로 모집된 참여자들에게 간단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어떤 범주에 속하는 데이트폭력을 경험했는지, 구체적인 에피소드 두 세가지를 들으며 데이트폭력 피해에 해당하는 여성들로 참여자들을 한정하였다. 더불어 모집 과정에서 연구 참여의 과정 및 비밀보장의 원칙에 대해 명시하였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스물다섯 명을 모집하여 인터뷰하였고, 본 연구에 적합한 열일곱 명만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에서 제외된 여섯 명의 참여자 중 네 명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고, 다른 두 명은 데이트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이성 교체 중 일어난 갈등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인터뷰는 한 번에서 세 번까지 이뤄졌었다. 첫 번째 인터뷰는 최소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인터뷰에서는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 30분에서 최대 50분까지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참여자들의 인터뷰 자료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기초로 하였다. 무엇보다 참여자의 보호가 지켜지기 위해 연구 초반 진행과정 및 연구 철회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공지했으며, 그 외 윤리적인 고려 사항들을 안내하였고, 참여자들의 동의서 작성을 전제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민감한 사회적, 관계적 이슈를 다루는 연구주제이다 보니 연구 참여자들을 보호할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다. 짧게는 한번에서 길게는 세 번의 인터뷰를 하면서 참여자들의 심리적, 실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였다. 특히,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던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다른 기관의 상담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실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언제든 연구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외 어떠한 외부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안내를 제시해 주었다.

#### 연구과정 평가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먼저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of material)을 활용하였다. 삼각 검증법은 각기 다른 범주에 속하는 외부자들에게 연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토대로 연구 결과를 보충 및 수정하는 것을 뜻한다(Mertens & McLaughlin, 1995). 이를 위해 연구자는 먼저 근거이론으로 자료를 분석한 경험이 있는 분석가 1명과 함께 자료를 분석한 후 결과를 비교해 가며 코딩과정을 거쳤다. 또한 이 결과를 연구자의 지도교수를 포함한 다섯 명의 교수와 본 연구의 참여자 열한 명,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여성 두 명에게 결과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였다.

분석가 1명과 함께 분석한 자료 결과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다섯 명의 교수와 함께 크게 여섯 번의 점검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의 지도교수를 통해 분석결과를 한 차례 검토 받았으며, 근거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강의 및 논문 지도를 하고 있는 외부 인사에게 한 차례 검토를 받았다. 근거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외부 인사에게 한 차례, 근거이론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받은 외부 인사에게 한 차례 연구 결과에 대한 점검을 받았다. 최초의 연구 분석이 이뤄진 이후에 총 네 번의 점검과 수정이 이뤄졌었다. 그런 다음, 연구 결과 코딩된 자료들이 참여자의 경험을 그대로 드러내 주면서도 학술적 용어들로 통용되어 사용될 수 있는 개념화를 위해 한차례 수정이 더 이뤄졌다. 더불어, 선택코딩에 대한 점검을 받은 후 한차례 더 수정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점검을 받기 위해 모

든 참여자들에게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였다. 총 17명의 참여자들 가운데 연락이 된 11명의 참여자들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아홉 명의 참여자들은 연구 결과가 자신의 심리내적 변화과정을 잘 드러내 줄 수 있었다고 하였으며, 한 명의 참여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감정들이 내재하지만, 특징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었다. 이에,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심리내적 변화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정된 하나의 개념으로 제시될 수 없으며, 다양한 심리내면 가운데서도 특징적인 요소들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다른 한 명의 참여자는 다른 피해 여성들이 자신과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두 명의 여성들로 연구 결과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다.

## 결 과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자료의 범주화 및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 열일곱 명과의 심층 면담 자료를 중심으로 개방코딩으로 분석한 결과, 총 127개의 개념과 51개의 하위 범주, 21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인과적 조건에는 ‘폭력 연애가 의아함’과 ‘당황함’, ‘혼란 중에 좋음’과 ‘폭력이 무서움’, ‘이별이 무서움’이 도출되었다. 맥락적 조건에는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과 ‘폭력에 대한 수용성’이 도출되었다. 중심현상은 ‘비정상적인 사랑을 경험함’으로 명

명하였다. 중재적 조건에는 ‘폭력경험 수준’, ‘폭력대처 수준’, ‘관계몰입도 수준’이 도출되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에는 ‘남자친구에게 몰두하기’, ‘남자친구에게 대항하기’, ‘사람들에게서 물러서기’, ‘폭력대처를 위해 대안찾기’, ‘자신의 소망을 상상하기’, ‘좋았던 때를 기억하기’, ‘남자친구와 단절하기’가 도출되었으며, 결과에는 ‘그리움’, ‘안도감’, ‘두려움’, ‘무덤덤’이 도출되었다. 이것을 표 2에 정리하였고, 패러다임 모형인 그림 1로 제시하였다.

###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일으키는 핵심 원인을 뜻한다. 즉, 일련의 사건 또는 심리적 반응을 이끌어 내는 조건을 뜻한다(Creswell, 2007). 이러한 조건에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적 요인들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을 주요한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심현상에 관여하는 피해여성의 ‘심리적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트폭력은 앞서 용어 설명에서도 소개했듯이, 통제와 간섭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적 폭력에서 시작해서 물리적 폭력으로 진전된다. 참여자들은 정신적 폭력을 장기간 경험하다가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것과 물리적인 폭력을 동시에 경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다수는 정신적인 폭력에서부터 시작해 서서히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모든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정신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다. 인과적 조건의 하위 범주에는 ‘폭력연애가 의아함’, ‘당황함’, ‘혼란 중에 좋음’, ‘폭력과 이별이 무서움’이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개념들의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좋아하는데 왜 그런지 이해하기 힘들 남자친구가 자신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 좋아하는게 맞는지 의심됨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움	폭력연애가 의아함	인과적 조건
좋으면서도 힘든 것이 연애인지 모르겠음 이상한 연애를 하는 것 같았음	연애가 이상하게 느껴짐		
남자친구의 행동에 놀랐음 기억과 감정이 떠오르지 않음 몸이 자꾸 아픈 원인을 몰랐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음	당황함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았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함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음		
간섭을 해주니까 더 좋아짐 남자친구의 행동과 상관없이 좋았음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짐	혼란 중에 좋음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음 연애할 때 원래 그런 것이라 생각함	좋아서 그런 것이라 여겨짐		
남자친구의 눈빛이 무서웠음 남자친구의 분노조절장애가 무서웠음	남자친구의 행동이 무서웠음	폭력과 이별이 무서움	
남자친구가 진짜 죽을까봐 무서웠음 남자친구가 떠날까봐 무서웠음	남자친구와의 분리가 무서웠음		
구속되어야 사랑이라고 생각함 맞춰줘야 할 것 같음 사랑에 빠진 후 단점까지도 이해함	사랑에 대한 인식		맥락적 조건
언제든 이별할 수 있음 아직 미혼임	교계에서 자유로움	이성교체에 대한 인식	
많이 사랑해 주기를 바람 특별한 존재감을 느끼게 해줌	남자친구에 대한 기대감		
갈등과 폭력이 재현됨 차가운 엄마를 다시 느끼게 됨	폭력을 재 경험함		
폭력 이면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함 외상 후 피하지 않고 더 요구하게 됨	폭력을 지속시킴	폭력에 대한 수용성	
애정결핍을 채우려고 함 남자친구의 폭력이 이해됨 나의 희생으로 나아질 것 같음	폭력을 수용함		
내 잘못, 미안함이 있는 사랑 내 잘못인지 의문이 드는 사랑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사랑	죄책감이 공존하는 사랑		중심 현상
혼란스러운 사랑 합리화를 하는 사랑 잘못된 사랑 이상하게 귀찮은 사랑	이상(異常)한 사랑	비정상적인 사랑을 경험함	
슬픈 마음이 드는 사랑 희생과 함께 하는 사랑	슬픈 사랑		
창피한 사랑 바보 같은 사랑 실망스러운 사랑	부끄러운 사랑		
아픔이 지속되는 사랑 사랑하니까 견뎌야 되는 사랑	아픈 사랑		

표 2. 개념들의 범주화

(계속 1)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정신적 폭력만 경험함 정신적, 언어폭력을 경험함 정신적 폭력에서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 수위 높은 폭력을 경험함	폭력의 범주		중재적 조건
정신적 폭력을 매일 경험함 정신적 폭력을 빈번하게 경험함 정신적 폭력을 때때로 경험함 신체적, 성적 폭력을 빈번하게 경험함 신체적, 성적 폭력을 때때로 경험함	폭력의 빈도	폭력경험 수준	
숨기고 싫어함 숨기지 않고 드러냄	폭력의 사실을 드러내는 정도		
늘 회피해 왔음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음	폭력 및 갈등에 대처해 본 경험	폭력대처 수준	
의지하고 싶음 혼자 해결하고 싶음	주변관계의 활용 정도		
관계에 집착이 심함 관계에 관심이 적음	몰입의 정도	관계몰입도 수준	작용/ 상호작용 전략
갈등이 생기면 불안해짐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게 됨	폭력 및 갈등 후 몰입 정도		
남자친구에게만 신경 쓰기 남자친구의 일상을 감시함 좋아한다고 여기며 매달림	남자친구에게 집착하기	남자친구에게 몰두하기	
남자친구가 한 눈판 것을 알아챈 남자친구의 이성 친구를 미워함	남자친구의 주변 친구들을 질투하기		
참지 않고 화를 터트림 폭력을 같이 행사함	남자친구와 부딪히기	남자친구에게 대항하기	
남자친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음 남자친구 요구에 반대로 행동함	남자친구에게 반항하기		
다른 친구들과의 연락을 두절함 은밀하게 사귀며 말하지 않음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함	혼자서 고립되기		
남자친구의 연락을 차단함 거주지 및 직장을 옮긴 계획을 함 정신적으로 멀어지려고 함	남자친구에게 거리두기	사람들에게서 물러서기	
신을 원망 함 남자친구를 원망 함 자신을 원망 함	모든 것을 원망하기		
다른 동성 친구를 만남 다른 이성 친구를 만남	다른 친구를 찾기	폭력대처를 위해 대안 찾기	
다른 소통 수단의 도움을 받음 타인의 도움을 받음	주변의 도움을 받기		
남자친구의 화가 풀리기를 기다림 폭력 이후 안아주기를 기다림 남자친구가 성숙해 지기를 기다림	갈등해소를 기다리기		
상상속의 남자친구를 갈망함 남자친구가 용서구하기를 바람 남자친구가 바랍이 나기를 바람	남자친구의 변화를 소망하기	자신의 소망을 상상하기	

표 2. 개념들의 범주화

(계속 2)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좋은 면만을 생각함 남자친구를 미화시켜 소개함	남자친구를 이상화하기	자신의 소망을 상상하기	작용/ 상호작용 전략
소중한 가족을 떠올려 봄 추억을 떠올려 봄	좋았던 때를 떠올리기	좋았던 때를 기억하기	
행복했던 때를 다시 느껴봄 사랑받았던 때를 느껴봄	좋았던 때를 느끼기		
남자친구의 행동에 실망하게 됨 좋아한게 아닌 것 같아 실망하게 됨	남자친구에게 실망하기	남자친구와 단절하기	
이별 통보를 함 경찰 및 주변에 도움을 받음	남자친구와 이별하기		
남자친구의 집착이 계속 생각남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집착을 기대함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기억됨 폭력 이후 안아줬던 것이 좋았음	전 남자친구가 그리움	그리움	결 과
헤어지지 않았음 헤어진게 후회됨 있을 때 잘해주지 라는 아쉬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짐이 아쉬움		
편안하고 행복해짐 귀찮은 일이 사라져서 좋음 더 큰 일이 생기지 않아 다행임	편안해짐	안도감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함 교제를 배울 수 있었음 내 자신에 대해 배운 시간이었음	좋은 경험이었음		
예전 관계가 끔찍하고 후회스러움 예전 습관이 나올까봐 걱정됨 이성교제를 못할 것 같음	교제가 무서움	두려움	
자존감이 낮아짐 자신을 안 좋게 여길 것이 두려움	평가가 두려움		
찾아와서 괴롭힐 것 같음 뉴스에서처럼 살인이 날 것 같음	전 남자친구가 두려움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관심이 줄어들음 여성스럽게 꾸미는데 관심이 사라짐	무관심해짐	무덤덤	
격했던 감정들이 무감각해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음	무더짐		

나는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애를 만났는데 내가 왜 맞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왜 맞지? 이해도 안 되고... (참여자 6)

처음에는 진짜 깜짝 놀랐었죠. (웃음) 어떻게 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하는지, 자

기는 그게 싫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요? (참여자 1)

근데 저는 그게... 좋았나 봐요. 그렇게 자꾸 간섭하고, 뭐 하지 말아라, 가만히 안 둔다, 욕하고 그래도 그게 좋았나 봐요. (눈물) 그게 좋고, 오히려 그게 없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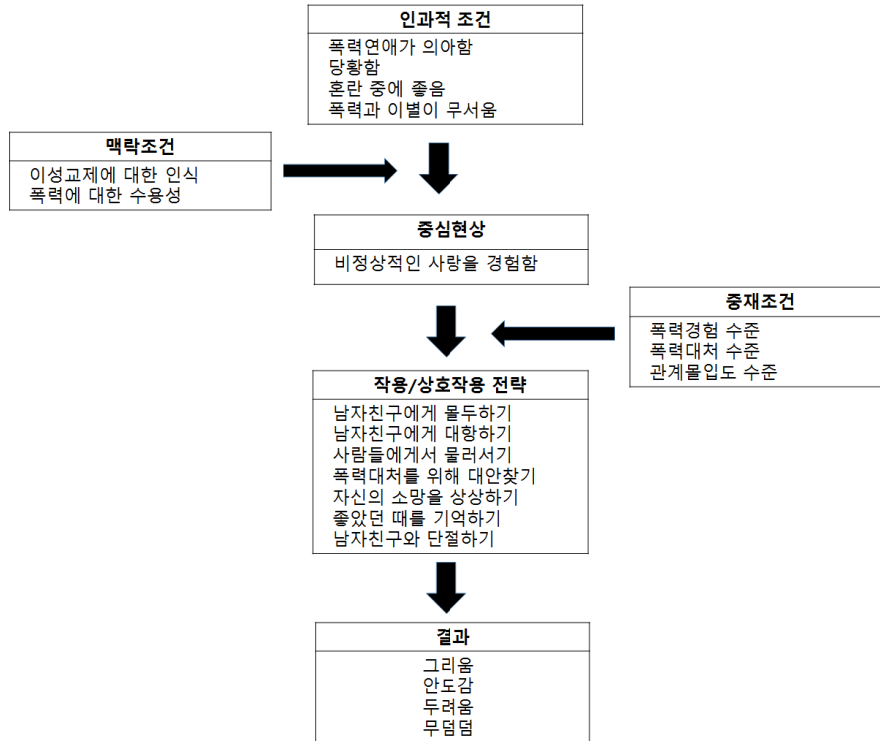


그림 1.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 패러다임 모형

면 어, 뭐지, 애가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참여자 14)

행동도 다르고 눈빛부터가 다르고...  
(눈빛이 어떻게 다르게) 그냥... 음... 막  
보통 화나면 눈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  
런 것처럼. 안 보이는 사람처럼. 그냥 막  
무섭고... 그때는... 네... 얘기를 할 때 욱  
박지르면서 하니까... 일반적으로 하면 되  
는데 눈빛이 막 그러니까 무서웠어요.  
(참여자 8)

**매락적 조건**

중심현상에 관여하는 매락적 조건에는 ‘이  
성교제에 대한 인식’과 ‘폭력에 대한 수용성’

이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 나름의 사  
랑에 대한 인식과 교제에 대한 인식, 남자친  
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인  
식과 기대감은 참여자들의 개인내적인 특성과  
관계의 패턴, 사회문화적인 영향과 상호작용  
하는데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개인적, 관계적, 환경적 요인은 데이트폭력이  
라는 외부사건과 맞물려 비정상적인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피해여성들은 사랑에 대해 다소 보수  
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  
자친구에게 주로 맞춰주는 방식으로, 구속되  
는 것에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며, 사랑에  
빠진 이후에는 남자친구의 단점까지도 이해하  
고 수용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데이트관

계에 있는 피해여성은 관계에 있어 다소 자유로운 태도를 나타내 주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었다. 또한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참여자가 가진 내적기대감은 그 정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갈등이나 폭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참여자들은 ‘폭력에 대한 수용성’이 높으며, 이성 관계에서 그 갈등과 폭력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갈등을 직접 눈으로 보았거나,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더라도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던 참여자들은 폭력에 대해서 다소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모와의 관계가 갈등적이었거나 소원하였던 경우에 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역동을 불안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폭력을 지속시키는 참여자들의 관계적 특성에는 폭력이면에 결코 주어지지 않는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는 것, 외상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라도 그러한 폭력을 피하지 않고 더 요구하는 관계패턴을 유지시킨다는 점이 있었다. 폭력을 수용하는 참여자들의 내적인 특성에는 폭력을 통해 애정 결핍을 채우려고 한다는 점, 남자친구의 폭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자신의 희생으로 남자친구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랑은 원래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서로를 구속해 줘야 사랑도 깊어지고... (참여자 16)

엄마랑 확실히 관계가 안 좋아요... (엄마는 어떤 분...) 엄마는 사실 엄마랑 관계도 좀 비슷한 거 같아요. 그냥 한 평생을 부모님한테 인정... 받으려고 살았거든요... 엄마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어요. 엄마가, 엄마가 인정. 다른 사람들은 둘째 치고 엄마가 너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참여자 15)

###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핵심적인 사건 또는 심리적 작용을 뜻하는 것(Strauss & Corbin, 1998)으로 본고에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참여자들의 핵심적 심리상태를 나타낸다. 이 현상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되는 특성이 있다.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참여자들의 심리내적인 상태를 나타내주는 중심현상은 ‘비정상적인 사랑을 경험함’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외부적 사건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갖게 하는 사랑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즉, 따뜻하고 풍성한 느낌을 갖게 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다소 상반되는 느낌들과 함께 경험되어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자아낸 것이다. ‘비정상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하위 요인들에는 ‘죄책감이 공존하는 사랑’, ‘이상한 사랑’, ‘슬픈 사랑’, ‘부끄러운 사랑’, ‘아픈 사랑’이 있었다.

비정상적인 사랑의 느낌을 강하게 느낀 참여자들은 자신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이 큰 사랑을 경험했으며, 이상하고 혼란스러운 느낌을 강하게 갖는 사랑을 하고 있었다. 또는 슬픔과 희생이 많은 사랑, 고통과 아픔을 강하게 느끼며 사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상적인 사랑의 느낌을 비교적

약하게 느낀 참여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거나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사랑을 경험했으며, 자신의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라고 여기며 귀찮은 느낌을 함께 갖는 사랑을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망하고 창피한 느낌, 바보 같다는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 남자친구의 폭력적 행동에 크게 실망하면서도 연애를 지속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 사귀사귀하는데... 남친을 사귀는데 남친한테 맞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애가 그런다면... 또... 이제 또 별거 아닌데... 당시에는 별거 아닌 거 같았는데, 미안함이 더 컸고 그랬는데, 미안함이 더 커서. 괜히 나 때문에 일이 커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참여자 15)

맞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 알고 있는데 그거가 개가 옆에 있으니깐 괜찮다고 느껴졌어요.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니까 용인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참여자 16)

그러니까 많이 희생이랑 사랑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다 해줄 수 있는데 다 해줄 수는 있어... 그러면서도 애를 사랑했으니까... (참여자 13)

약간 창피한 것도 있었고. 남자친구가 그런 행동을 하고 제가 거기에 당하는 사람이라는 게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런

연애,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게... (참여자 11)

다른 친구랑 깊은 관계도 아닌데 연락을 했다고 되게 화가 나서 저를 때렸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음... 그때는 좀 많이 되게 힘들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후회도 되고 좀 그랬었어요. (참여자 6)

###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 조건을 촉진 또는 억제 하는 것을 뜻한다(Strauss & Corbin, 1998). 비정상적인 사랑을 경험한 피해여성들의 심리내적 변화과정의 중재적 조건으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폭력경험 수준’에서는 피해여성이 데이트폭력을 어떤 범주 속에서 어느 정도의 수위로 경험하게 되는지를 나타내 준다. 또한 각 범주에 속하는 데이트폭력을 매일 경험했는지, 수시로 경험했는지, 간헐적으로 경험했는지에 따라 다른 전략을 활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폭력대처 수준’에서는 피해여성이 데이트폭력의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정도의 차이, 폭력 및 갈등에 대처해 본 이전의 경험, 주변관계를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다른 전략을 활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관계몰입도 수준’에서는 피해여성이 관계에서 어느 정도 집착하는지와 관련된 몰입의 정도, 폭력과 갈등을 경험한 이후에 관계에서 보이는 몰입의 정도에 따라 다른 전략을 활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막, 막 간섭하고, 하지 말라



하고 막,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찌어찌 하다가 때리고 그... 모텔까지 데려가 가지고... 미안하다...도 아니고 갈수록 심하게 하는 게. (참여자 6)

(힘들 때는 누구랑) 언니랑... 우선 쌍둥이이다 보니까 친구처럼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엄마한테 못하는 얘기를 언니한테도 하고 하다보니까 그랬던 거 같아요. (참여자 3)

옆에 있다는 게 일단 좋았으니까... 옆에 없으면... 내가 뭘 해도 연락이 없거나 간섭 같은 걸 안 해주면 오히려... 늘 옆에서 있어줘야 하는 게 있어요. (참여자 16)

####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심현상을 다뤄나가는 전략을 뜻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적인 사랑을 경험한 중심현상을 다뤄나가는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적인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은 크게 일곱 가지로 도출되었다. 이 일곱 가지 범주에는 ‘남자친구에게 몰두하기’, ‘남자친구에게 대항하기’, ‘사람들에게서 물러서기’, ‘폭력대처를 위해 대안 찾기’, ‘자신의 소망을 상상하기’, ‘좋았던 때를 기억하기’, ‘남자친구와 단절하기’가 포함된다. 참여자들은 데이트폭력의 피해자인 것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은밀하게 교체를 하면서 고립되는 방식을 취한다. 남자친구의 폭력을 견디기 힘들었던 참여자들은 남자친구의 연락을 차단하고 거짓말을 하며,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물리적 정신적 거리두기를 시작한다. 남자친구의 간

섭과 통제를 벗어나 다른 동성친구 및 이성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다른 소통의 수단을 찾게 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안을 찾아 나간다.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이어 왔던 참여자들은 남자친구의 화가 풀려서 자신을 다시 안아주게 되거나 남자친구가 스스로 성숙해 지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상상속의 남자친구를 갈망하거나 남자친구가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고, 바람이 나기를 소망하기도 한다. 주변사람들에게는 남자친구를 미화시켜 소개하거나 좋은 면만을 생각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데이트폭력에 따른 심리적 반응을 일축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데이트폭력을 당하면서 참여자들은 소중한 가족을 떠올리게 되고, 좋았던 때를 기억해 보며, 행복했던 때와 사랑받았던 때의 느낌을 떠올려 추억하게 된다.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한 참여자들은 남자친구의 행동 자체에 실망을 하거나 자신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실망을 느끼게 되고, 이별을 통보하거나 경찰 등 주변의 도움을 받아 관계의 단절을 시도한다.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락이 안 되고 하면 제가 못 참는 거예요. 이제. 집착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제발 좀 떨어져 나가라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면 제가 못 참는 거예요 이제. 너무 남자친구한테만 신경이 곤두서서... 계속 다시 나한테 뭐가 행동을 보여줄 때까지 집착을 너무 하는 거예요.. (참여자 16)

이럴 거면 왜 만나냐고, 꺼지라고 그러고... 제가 오히려 더 잔인하게 화를 낸

거 같아요. (참여자 3)

친구들하고 점점 더 멀어졌던 거 같아요. 친구가 연락이 와도 나중에 하지 모 하면서 하루 이틀 미루면서 점점 연락도 안하게 되고... 처음부터 아예 서서히 나중에, 나중에 (혀를 차며) 하면서 미루면서 친구랑도 멀어지고, 연락도 안하게 되고... (참여자 17)

저도 이제,, 그래, 나도 뒤에서 이제 친구들 많이 만날게 하면서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얘기 안하고 만나고, 하고... 그러면서 친구들 만나고 이랬었어요. (참여자 13)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우리가 싸웠을 때는. 그리고 나서는 꼭 다시 안아줘요 남자친구가 나를. 알겠다고 사랑한다고 그걸 또 기다렸던 거 같아요 그걸 또 심리적으로. 이따가 또 그렇게 할 거야... (참여자 13)

그 노래 음도 생각나고 막 하는데, 하는데 노래가, 노래가 맞을 때, 맞고 그 순간에 그 장면이... 막... 이렇게 예뻐하는 (눈물) 얼마나 아프냐고... (참여자 6)

그 후에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앞으로 찾아와도 너 안 본다 그랬는데, 진짜 몇 번 찾아왔는데 제가 안 나왔어요. (참여자 2)

## 결과

결과는 중심현상을 작용/상호작용이 다룬

것을 나타낸다(Strauss & Corbin, 1998). 비정상적인 사랑을 경험한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적 변화 과정은 총 여섯 가지의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을 통해 크게 네 가지 결과를 낳게 된다. 이 네 가지 결과는 ‘그리움’, ‘안도감’, ‘두려움’, ‘무덤덤’을 나타낸다. ‘그리움’을 느끼게 된 참여자들은 남자친구에 대한 미련을 느끼며 헤어지게 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되었다. 이전 남자친구가 해 왔던 집착이 계속 생각나기도 하고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통제와 간섭이 주를 이루는 정신적 폭력을 기대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전 남자친구의 폭력을 사랑으로 기억하며, 폭력이후에 안아주었던 때를 추억하기도 하였다. 헤어짐이 아쉬웠던 참여자들은 헤어지기가 싫었던 마음, 헤어진 것에 후회되는 마음, 있을 때 잘해주지라는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안도감’을 느낀 참여자들은 데이트폭력을 더 이상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함, 행복감, 좋음, 다행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또한 좋은 인생의 경험을 했다는 생각, 교제를 배울 수 있었고, 이성에 대해 조금 더 확장된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려움’을 느낀 참여자들은 교제가 두렵고, 자신에 대한 평가에 두려움을 느끼며, 전 남자친구가 다시 자신을 괴롭히게 될 것을 두렵게 느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덤덤’을 느낀 참여자들은 성적 역할 및 기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 감정이 무뎠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도 제일 다시는 올 것, 하지 못한 것 같은 사랑? 정말 깊이 내 곁 다 주면

서 했던 사랑이고, 그랬던 만큼 힘들었던 사랑.. 진짜 사랑이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15)

한동안은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혼자 너무 편하더라고요. 진짜 행행 행복을 만끽한 기분? 그렇게 행복이 찾아오고... 다 지우고 없애고 없던 사람처럼 하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는 좀 행복하더라고요. (참여자 1)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끔찍해요. 후회스럽고.. 그게 내 첫 경험이었다는 게 켈 끔찍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영화는 못 봐요. 그로테스크한 성관계 나오는 거는 저한테 대입이 돼서 못 봐요. (참여자 16)

뭔가 무감각해 졌다고 해야 하나? 네. 그냥 너무 며칠 계속 끔끔 앓다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냥 그렇게..그렇게 이제 끝난 거 같아요. (참여자 3)

#### 선택코딩 결과

선택코딩은 근거이론의 마지막 분석 과정으로, 각 범주들을 추상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범주를 밝히고, 그 핵심범주를 둘러싼 각 범주들 사이에 관계를 연결 짓는 진술문을 서술하며, 각 범주들을 더욱 정교화 한다(Strauss & Corbin, 1990, 1998). 핵심범주를 통해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연구인지, 이 연구에서 어떤 현상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고의

핵심범주는 ‘고통스러운 사랑의 미로를 지나 모순된 감정을 확장 또는 축소해 나가기’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남자친구와의 연애를 시작한 이후 데이트폭력을 경험하면서 고통스러운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고통은 참여자들의 정서와 사고, 행동 등 다양한 심리내면의 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사랑하고 싶어 시작한 연애, 사랑을 느끼게 해 준 연애,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연애, 사랑이 절망으로 변해가는 연애를 경험하면서 사랑의 맛과 농도는 변해간다. 달콤하리라 기대했던 사랑은 쓰다 못해 쓰라리기까지 한 사랑으로 되돌아왔다. 아프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떠날 수 없고, 이 고통을 조금만 더 견디며 지나가 보면 사랑이 찾아올 것만 같은 기대감에 참여자들은 복잡한 사랑의 역사를 지속해 간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사랑에 머물러 있기도, 뒤돌아 가기도, 도망가기도 하면서 모순된 감정이 변화해 가는 것을 느낀다. 이에 따라 드러난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적 변화과정을 핵심범주인 ‘고통스러운 사랑의 미로를 지나 모순된 감정을 확장 또는 축소해 나가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이 있다.

참여자들은 사랑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연애를 시작했다.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을 느끼게 해 준 남자친구에게 정서적인 애착과 기대감은 점점 커져갔다. 자신을 특별하게 대해준 남자친구를 통해 특별한 존재가 된 것만 같아 높은 자존감을 맛보기도 하였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기대는 점점 더 높아져 가는데 통제와 간섭이 주를 이루는 정신적 범주의 데이트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그러한 남자친구의 폭력에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이제 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남자친구의

통제와 간섭에 의아하고 당황한 느낌을 받은 참여자들이 있었던 반면, 자신을 진짜 좋아해주는 것만 같다는 생각에 남자친구가 더욱 좋아지는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하였다. 남자친구의 폭력의 수위가 물리적, 신체적, 성적인 범위로 높아져 가면서 참여자들은 서서히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이 가졌던 사랑에 대한 욕구와 기대는 점점 더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한다. 남자친구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욕구가 크고,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했던 참여자들은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의 수위가 높아져 감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한다. 자신이 잘 인내하고 견디면 자신이 기대했던 사랑, 남자친구가 과거에 해 주었던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반면, 갈등을 싫어하고 회피해 왔던 참여자들은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경험하게 된 데이트폭력을 통해 사랑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저버리게 된다. 두렵고 화가 나기도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몰라 다른 활동에 몰두하거나 그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회피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행동을 보이게 되기도 하였다.

지속되는 데이트폭력에 참여자들은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갈증을 느끼기도, 사랑이 절망으로 변해가는 좌절을 느끼기도 하였다. 데이트폭력 이후에 남자친구가 자신을 안아주고 달래주는 경험이 너무나 좋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될수록 감정적인 소모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을 스스로 달래며 언젠가 다시 찾아올 남자친구와의 화해를 갈망

하는 자신의 사랑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이런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에 화가 나기도 하였다. 폭력적인 관계를 지속하며 헤어 나올 수 없다고 여긴 참여자들은 신과 남자친구, 때로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였다. 달콤하리라 기대했던 사랑은 쓰라린 사랑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자신만을 사랑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지속한 참여자들은 폭력적인 관계를 더 많이 인내하였다. 또한,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최대한 회피해 왔던 참여자들 역시도 폭력적인 관계를 지속하였다.

자신의 사랑이 특별하다고 여기며 남자친구의 사랑을 갈구했던 참여자들은 남자친구에게 더 많이 집착하고 매달리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의 수위나 지속 성과는 상관없이, 남자친구가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식었거나 다른 이성에게 마음이 간 것만 같은 의심을 하게 될수록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 남자친구에게 받아왔던 통제와 간섭의 방식으로 남자친구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남자친구와 똑같은 방식으로 물리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어떤 참여자들은 남자친구에 대한 기대와 사랑에 대한 희망을 저버렸지만 폭력적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소극적인 행동을 보인다. 그러한 행동에 더욱 화가 난 남자친구는 폭력의 수위를 높여가고, 그것에 놀란 참여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된다. 남자친구에게 해 왔던 소극적인 대처방식은 더욱더 소극적으로 변화되어도망가거나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해 줄 것을 기대하게 된다.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했던 참여자들은 극심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폭력

한가운데서 가족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따뜻한 사랑의 추억을 떠올리며 심정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였다.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어, 참여자들은 이별에 대한 느낌을 감지하게 되고 스스로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을 갖기도 한다. 감정적인 소모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깨어진 신뢰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체념을 갖게 하며,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을 것 같다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생각한 참여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체념을 하거나 원망을 하기도 하고, 다시 뒤돌아 다른 시도들을 해 보며 관계의 전환을 경험한다. 다양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나 참여자들은 자신의 모순된 감정이 확장 또는 축소되는 것을 경험한다. 사랑이 함께 한 양가감정이 다양한 관계 역동 속에서 변화되어 모순된 감정이 축소된 참여자들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지만, 모순된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참여자들은 그리움을 느끼게 되었다. 관계 역동 가운데 폭력에 대한 경험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참여자들은 모순된 감정이 확장되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지만, 다양한 시도들을 해 본 가운데 모순된 감정이 축소된 참여자들은 무덤덤함을 느끼게 되었다.

## 논 의

본 연구의 결과 나타난 피해여성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초기반응은 인과적 조건으로 ‘폭력연애가 의아함’, ‘당황함’, ‘혼란 중에 좋음’, ‘폭력과 이별이 무서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과적 조건에 해당하는 요인들은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맥락적 조건에 해당하는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 및 ‘폭력에 대한 수용성’에 따라 남자친구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과 기대는 피해여성이 가지고 있는 심리구조에 영향을 미쳐 남자친구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갈등이 촉발됐을 때 반응패턴 및 관계양상에도 영향을 미쳐 또 다른 심리내면에 형성되도록 한다. 피해여성이 가지고 있는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과 기대는 과거와 현재 친밀한 관계에서의 경험과 심리내면에 내사된 사회문화적 기준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피해여성은 이성교제에 있어 개방적이거나 폐쇄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남자친구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기대감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맥락적 조건에 해당하는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 및 ‘폭력에 대한 수용성’은 참여자들의 인식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갖게 된 사랑에 대한 욕구와 기대감 및 이성교제에서 갖는 개방성이 그 수준과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남자친구에게 적절한 기대감을 갖고 이성교제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남자친구에게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성교제에서 개방적이거나, 남자친구에게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성교제에서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남자친구에게 적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성교제에서 폐쇄적이거나, 남자친구에게 적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성교제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이성교제에서 갖게 된 기대와 태도의 수준 및 정도의 차이는 피해여성이 오랫동안 경험해 온 다양한 경험 및 사회문화적 인식과 기준들이 상호작용적으로 내사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맥락적 조건에 해당하는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은 피해여성의 타인에 대한 신뢰감에 기초한다. 피해여성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가치관과 함께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기대와 태도를 갖게 된다. 초기 양육자와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갖고 있는 피해여성은 남자친구에게 적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내사한 사회적 기대와 문화적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즉, 남자친구에게는 적절한 기대감과 열린 태도를 갖고 있지만, 사회문화적으로 가부장적 기대와 가치관을 내사한 피해여성은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패턴으로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었다. 남자친구가 가진 기대와 태도는 또 다시 피해여성의 관계 패턴과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기도,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데이트폭력을 행사한 남자친구의 통제와 힘의 권력에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형태로 관계를 맺어 오거나, 이타적일뿐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이상적인 여성상을 따른 피해여성은 통제와 간섭이 주를 이루는 정신적 폭력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내적 갈등 속에서 관계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폭력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피해여성은 남자친구, 가족, 친구 등 관계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경험해 왔으며, 관계의 하부요인인 통제력, 주장성, 순응성, 자기희생, 관여 등에서 취약한 모습을 나타낸다(이혜원, 2016).

맥락적 조건에 해당하는 '폭력에 대한 수용성'은 참여자들의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경험이 내사된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적절한 기대감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피해여성은 갈등이 유발되었을 때 그것을 객관화할 수 있지만, 사회문화적 기준과 기대감은 또 다른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가운데 남자친구에게 맞춰줘야 할 것 같다고 느꼈던 피해여성은 자신에게 충족되지 않은 심리내적 욕구에 이끌렸던 참여자들과 달리 사회문화적으로 기대되는 여성상을 내사한 인식으로 남자친구의 통제와 힘의 권력에 이끌렸다. 참여자 1은 '그래도 여자니까 남자친구가 원하는 걸 대부분 맞춰주려고 노력해 왔다.'고 하였다. 이렇듯, 성역할태도에 순응적인 여성이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훨씬 더 높은 결과 사회 권력과 위계에 순응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박경민, 2016).

맥락적 조건에 기여하는 참여자들의 과거 경험은 현재 폭력을 대처해 가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생애 초기에서부터 신뢰로운 관계 형성의 경험이 부족했던 피해여성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발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적절한 기대감을 갖거나 이성교제에서 적절한 개방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강효진 & 박기환, 2013; 김민정, 2016; 서경현, 2004; Kwong, Bartholomew, Henderson, & Trinke, 2003). 실질적인 폭력 또는 정신적인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던 피해여성은 양육자의 폭력 또는 유기와 방임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지 못한다(Kwong, Bartholomew, Henderson, & Trinke, 2003). 초기 양육자와 신뢰로운 관계 형성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반응 및 대처양식에 영향을 미치며(Weston, 2008), 초기 양육자와 불안정한 애착 형성은 폭력을 재 경험할 가능성을 높이는데(Yakovysky & Timmons, 2013),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높여 폭력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모습을 나타내 준 것이다(Kaura & Lohman, 2009). 또한 피해여성은 이성교제 중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자

친구에게 부적절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이전에 친밀한 관계에서 얻지 못했던 사랑과 돌봄을 남자친구에게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폭력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회피적인 관계패턴을 발전시킨다. 따라서 피해여성 안에 해결되지 않은 관계적 욕구 및 불안정감으로 남자친구에게 과도하거나 과소한 기대감 및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중심현상은 참여자들이 남자친구에게 과도하거나 과소한 기대 및 태도에 따라 남자친구와의 관계 역동과 맞물려 새로운 심리내적 경험으로 나타난다.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은 중심현상으로 ‘비정상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피해여성은 사랑의 감정이 동반된 고통스러운 양가감정으로 폭력적인 관계를 지속한다. 이것은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반응은 사랑의 감정이 섞인 분노, 불안, 상처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Henton, Cate, Koval, Lloyd, & Christopher, 1983). 남자친구가 자신을 많이 사랑해 주길 바라며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피해여성은 남자친구의 통제와 힘의 권력에 순응하며 사랑과 친밀감을 키워 나간다. 이렇게 피해여성의 심리내적 기대와 동기가 데이트폭력이 가진 통제와 힘의 권력에 부합되어 작용할 때, 피해여성은 사랑과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더불어, 피해여성이 사회문화적인 가치관을 따라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상을 내사한 경우 데이트폭력을 통한 힘의 남용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하는 관계역학이 성립된다. 참여자 13은 “남자친구의 통제와 간섭을 통해 사랑의 감정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남자친구의 어떤 행동이든지 이해하고 넘어 가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피해여성이 가진 심리내적

욕구와 기대가 남자친구의 욕구와 기대에 상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힘과 통제에 순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이 부족할 뿐 아니라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과 폭력이 생길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큰 피해여성은 남자친구의 통제와 힘의 권력에 불안과 두려움을 더욱더 키워 나간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또 다시 관계에서 회피적이고 소극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 하지만, 가부장제 사회문화 속에서 형성된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상은 심리내면의 갈등을 촉발한다. 즉, 피해여성 내면에 내사된 사회문화적 가치는 피해여성이 남자친구의 통제와 힘의 권력에 순응하며 의존해야 하지만, 폭력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불안은 회피적이고 소극적인 행동을 하게 함으로 순응과 회피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듯, 피해여성이 가진 심리내면의 불안정한 기대와 태도는 남자친구와의 관계 역학 뿐 아니라, 내사된 사회문화적인 가치관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사랑과 친밀감을 키워 가기도, 반대로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울 수도 없는 이중 구속의 현실을 만들어 낸다. 참여자11은 폭력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적갈등을 경험했지만, 그것에서 벗어날 수도 그것을 잘 견뎌낼 수도 없는 고착상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데이트폭력은 통제와 간섭이 주를 이루는 정신적 폭력에서 물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 등과 같은 가시적 폭력으로 진전된다. 여기서 피해여성은 폭력적인 관계에 영향을 받고, 또 다시 영향을 주는 가운데 심리내적 변화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 속에서 갈등에 대처해 나가는 피해여성의 개인적 대처방식과 다양한 관계적 차원들이 상호작용을 이룬다. 가족을

비롯해 친한 친구 등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다른 대상들은 초기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피해여성의 심리적 갈등을 완화시켜 주지만, 사회적 가치관과 기대를 내사한 이들의 평가는 또 다른 갈등을 촉발시킨다(Jackson, Cram, & Seymour, 2000).

중재적 조건에는 참여자들의 ‘폭력경험 수준’과 ‘폭력대처 수준’, ‘관계몰입도 수준’이 관여한다. 즉, 폭력은 정신적 폭력에서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 수위가 높아져 가고, 이에 따라 참여자들이 폭력에 대처해 왔던 경험과 대처수준 및 관계에 몰입하는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방식을 나타내 준다. 피해여성이 남자친구와 갖는 관계는 친밀한 관계에서 기대하는 욕구에 따라 각기 다르게 형성된다. 피해여성은 자신의 심리내적 욕구와 기대에 부합한 남자친구와의 관계역학에 따라 관계의 만족을 느끼면서 다른 대안이 적은 가운데 헌신을 많이 한 경우에 폭력적인 관계에 더 머물 수 있었다(Rhatigan, Shorey, Nathanson, & Alison, 2011). 반면에 데이트폭력을 문제로 인식하고 남자친구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피해여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한다. 즉, 내적갈등을 경험하면서 남자친구의 폭력적인 행동에 실망을 느낀 피해여성은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남자친구와 거리를 두고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에는 ‘남자친구에게 몰두하기’, ‘남자친구에게 대항하기’, ‘사람들에게서 물러서기’, ‘폭력대처를 위해 대안 찾기’, ‘자신의 소망을 상상하기’, ‘좋았던 때를 기억하기’, ‘남자친구와 단절하기’가 있다. 참여자들은 ‘비정상적인 사랑을 경험함’에서 각기 다른 중재적 조건에 의해 서로 다른 전략을 구

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에게 몰두하기’ 전략을 활용한 참여자들은 남자친구의 통제와 힘의 권력에 순응하며 사랑과 친밀감을 키워간다. 이들은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죄책감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 취약한 심리구조를 갖고 있는 피해여성은 사랑의 욕구가 높은 반면, 가학적인 대상 외에는 신뢰할만한 안전한 대상과의 친밀한 관계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대적인 대상을 의지한다(강효진 & 박기환, 2013; 김익환, 2004; 심영희, 1998; Hines & Saudino, 2003). 그러면서 데이트폭력을 행사하는 남자친구의 문제를 비난하게 되면, 그 대상이 떠나버릴 것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함으로(Henderson, Bartholomew, Trinke, & Kwong, 2005), 그 불안감을 견뎌내기 위해 역설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곧, 책임의 소재를 자신에게로 돌리는 기제를 발달시켜 학대적인 대상인 남자친구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다(Graham, 2005). 그 결과 죄책감을 느끼고, 남자친구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것에 큰 슬픔을 느낀다. 결국 피해여성은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성인기 친밀한 이성 관계에서도 학대적인 대상에게 의존하여 힘의 남용이 실현되는 폭력의 굴레를 지속한다. 따라서 피해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은 폭력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자신이 아닌 가해자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포함한다(김주현, 2008).

슬픔을 느낀 피해여성은 관계적 차원에서 주변에 친밀한 대상들이 남자친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통해 더욱 높은 불안감을 느낀다. 이러한 불안감을 견디지 못한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물러서기’와 같은 전략을 활용한다. 이것은 남자친구가 떠나버릴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남자친구를



비난하는 다른 관계적 차원에서의 평가와 비난이 심리내면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킨 것이다. 하지만 피해여성은 고립을 자처하여 학대적이지만 친밀한 대상인 남자친구를 더욱 갈망하게 하고, 상상 속에서 자신의 욕구와 기대를 담아 ‘자신의 소망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희생으로 남자친구가 언젠가는 성숙해질 것이라는 이타적 망상(이정은, 2007) 및 비현실적인 기대감(Arriaga, Slaughterbeck, Capezza, & Hmurovic, 2007)을 갖고, 그들의 관계는 특별하다는 인식(Agnew, Loving, & Drigotas, 2001)으로 고통을 상쇄시키려 한다. 이러한 시도들은 피해여성이 가해남성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Kearns & Fincham, 2005), 현실 속의 남자친구가 더욱더 자신의 욕구와 기대를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체감하도록 이끈다. 하지만, 피해여성은 역설적으로 남자친구의 통제와 힘의 권력에 더욱 강한 애착을 갖게 되었다. 점점 더 자신에게만 집착해 가는 피해여성의 기대와 행동에 따라 새로운 행동으로 대응한 남자친구와의 새로운 관계역학 속에서 피해여성의 질투심이 자극되었다. 자신만을 사랑해 줄 것을 기대했던 피해여성의 기대와 환상이 깨어지는 순간, 남자친구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원하지 않던 이별을 경험하게 되었다.

중심현상 가운데 혼란스러움 및 귀찮음 등을 느낀 참여자들은 중재적 조건으로 폭력의 수위가 높아져 갈수록 회피하는 대처방식으로 관계의 몰입도가 적은 경우,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사람들에게서 물러서기’ 및 ‘자신의 소망을 상상하기’ 등과 같이 더욱 회피하고 억압하며,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등의 모습을 나타내 준다. 과도한 경계심으로 타인에게 기본적인 신뢰감을 갖지 못한 피해여성은 초기

통제와 간섭이 주를 이루는 정신적 폭력을 귀찮게 여긴다. 남자친구의 과도한 요구와 기대는 피해여성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촉발시켜 남자친구를 멀리 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피해여성은 그러한 남자친구의 통제와 힘의 권력을 귀찮게 여기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 내면에 친밀함에 대한 불신과 폭력 및 학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억압한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들은 남자친구의 정신적 폭력에 귀찮음과 물리적 폭력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거리를 두고 대안을 찾으면서 남자친구에 의해 이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것은 상대방의 분노를 더 자극할 수 있는 소극적 대처방식을 고수한 결과로 볼 수 있다(Kuijpers, van der Knaap, & Winkel, 2012; Widom, 2000). 피해여성은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신체적으로 표현하면서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며, 등이 결리고, 온몸에 마비가 오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자 10은 “좋아하면서도 귀찮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으며, 참여자 12는 “온 몸에 오한이 오며, 등도 아프고요”라고 하며 남자친구를 멀리 할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이중구속의 현실을 드러내 주었다.

반면, 갈등과 폭력을 두려워하는 피해여성은 사회문화적 기대와 가치관을 내사하여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게 되지만, 내면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역동에 의해 남자친구를 더 멀리 하면서 지속적인 내적 갈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현상은 피해여성이 초기 중요한 애착 대상에게서 뿐 아니라 이후 중요한 대상들에게서 신뢰로운 관계형성에 실패한 결과로, 내면의 두려운 내적 자아가 힘을 행사함과 동시에 사회문화적 가치관이 내사된 순종적인 내적 자아가 갈등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피해여성이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싶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고착상태를 만들어 내고,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해 주거나 바람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이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게 한다. 이러한 소망과 두려움은 남자친구에게서 멀어지는 행동을 더욱 강화해 수위가 높은 폭력을 경험하게 하고, 이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며 이별을 하게 된다.

결과에는 ‘그리움’, ‘안도감’, ‘두려움’, ‘무덤덤’이 도출되었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느낀 비정상적인 사랑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게 된 결과를 나타내 준다. ‘남자친구에게 몰두하기’ 및 ‘자신의 소망을 상상하기’ 전략을 활용했던 참여자들은 이별 이후 전 남자친구의 집착과 통제를 비롯한 폭력을 그리워하였다. 반면, ‘남자친구에게 대항하기’, ‘폭력대처를 위해 대안 찾기’, ‘남자친구와 단절하기’ 등의 전략을 활용한 참여자들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다. ‘사람들에게서 물러서기’, ‘자신의 소망을 상상하기’ 등의 전략을 활용한 참여자들은 이별 이후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여러 전략들을 주도적으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인 평가를 하게 된 참여자들은 ‘무덤덤’한 심리내면을 나타내 주었다. 이렇듯,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전략들을 활용하는 가운데 다른 심리내면의 결과를 갖게 되었다.

선택코딩의 결과 나타난 핵심범주는 ‘고통스러운 사랑의 미로를 지나 모순된 감정을 확장 또는 축소해 나가기’였다. 참여자들은 사랑의 감정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모순된 감정들을 느낀다. 수위가 높아져 가는 데이트폭력을 경험하며 폭력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폭력에 대처해 본 경험과 수준, 관계에 몰입

하는 정도에 따라 남자친구에게 더 많이 집착하고 몰두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남자친구의 폭력에 대항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여성은 사람들에게서 물러나 고립되기도 하였고,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안을 찾거나 자신의 소망대로 현재의 고통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상상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이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정한 계기 가운데 하나는 진심으로 사랑받고 존중 받으며 좋았던 때를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이었다. 또한 남자친구와 단절을 결심하고 이별하게 되면서 그리움, 안도감, 두려움, 무덤덤 등으로 모순된 감정이 확장 또는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내 주었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트폭력 피해여성들의 다양한 심리내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드러내준 점에 의의가 있었다. 특히, 데이트폭력 피해여성들의 중요한 애착대상들과의 관계 경험이 내사된 방식으로 데이트폭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대처해 나가는 지를 드러내 줄 수 있었다. 더불어, 피해여성을 둘러싼 가족과 사회 등의 가치관과 관계 역동이 어떻게 피해여성의 심리내면에 내사되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지를 드러내 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현장에서 피해여성들의 심리내면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긍정적으로 자기 삶을 회고한 참여자들의 자원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취약한 심리적, 관계적,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삶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소수의 참여자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한다면, 이들이 가진 예외적인 자원을 밝

히고 이를 통해 피해여성을 돕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데이트 폭력을 하나의 외부적 사건이 아닌 연인관계에 있는 남성과 여성이 만들어 내는 관계의 역학 속에서 발생한 관계적 사건으로 보는 접근을 후속연구로 남겨둘 수 있겠다. 즉, 데이트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이 피해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으며, 피해여성이 어떠한 심리적, 관계적 역동을 일으키게 되는지를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피해여성은 데이트폭력을 행사하는 남자친구를 나쁜 대상으로 경험하게 되지만, 폭력적인 관계의 역학을 만들어 내는 자신의 취약성을 통해 나쁜 대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좀 더 다각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돕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피해여성이 만들어 내는 관계의 역학을 세밀하게 밝혀낼 수 있는 연구를 후속 과제로 남겨두겠다.

### 참고문헌

강효진 (2009). 폭력적인 데이트 관계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피해 여성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효진, 박지환 (2013). 데이트 폭력피해의 위험요인 및 관계지속요인. 한국범죄심리연구, 9(3), 27-54.  
 김민정 (2016). 학교 밖 여자청소년의 데이트폭력 피해 예측 요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광은, 이위갑 (2005). 연인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53-

239.  
 김옥수 (2005).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익환 (2004).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케이스매니지먼트 실천모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주현 (2008). 가정폭력피해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학회 연구지, 13(1), 271-297.  
 박경민 (2016). 남녀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허용도 차이: 가해자, 피해자 입장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하나, 장수미 (2012). 성장기 부모간폭력목격 경험과 데이트성폭력피해의 관계 피해여대생 음주행동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 149-176.  
 배수희 (2015). 데이트 성폭력 실태와 담론 분석. 젠더연구, 20(1) 57-69.  
 서경현 (200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147-162.  
 서경현 (2008). 공격적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의 분노 및 분노표현. 정신병적 경향성, 중독성과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2), 21-39.  
 신혜섭 (2006).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경험과의 관련성: 여대생의 보고를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25(1), 117-130.  
 심영희 (1998).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정체성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양대 사회과학논총, 17(1), 389-440.  
 유선영 (2000). 여대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

- 트폭력 피해간의 매개 요인에 관한 연구: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연, 곽영길 (2011).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31(1), 3-27.
- 이영숙 (1998). 이성교제중 발생한 폭력. *대한 가정학회*, 36(4), 49-61.
- 이정은 (2007). 폭력적 데이트 관계 지속에 관한 투자모델의 타당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원 (2016). 미혼여성의 데이트폭력 경험과 대인관계문제, 우울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영 (2014).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주 (2008). '데이트폭력'구성과 대응에 관한 연구: 20대 여성의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경 (2012). 여대생의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명시적·암묵적 성 고정관념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gnew, C. R. (2009). Commitment, theories and typologies. In H. T. Reis & S. K. Sprecher (Eds.), *Encyclopedia of human relationships* (Vol. 1, pp. 245-248). Thousand Oaks, CA: Sage.
- Agnew, C. R., Loving, T. J., & Drigotas, S. M. (2001). Substituting the forest for the trees: Social networks and the prediction of romantic relationship state and fat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042-1057.
- Amar, A. F., & Gennaro, S. (2005). Dating violence in college women: Associated physical injury, healthcare usage, and mental health symptoms. *Nursing*, 54(4), 235-242.
- Arriaga, X. B., Slaughterbeck, E. S., Capezza, N. M., & Hmurovic, J. L. (2007). From bad to worse: Relationship commitment and vulnerability to partner imperfections. *Personal Relationships*, 14(1), 389-409.
- Campbell, J. C., & Kendall-Tackett, K. A. (2004). Intimate partner violence: Implications for women's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K. Kendall-Tackett. (Ed), *Handbook of women, stress and trauma*. New York: Brunner/Routledge.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De Hooge, I. E., Zeelenberg, M., & Breugelmans, S. M. (2010). Restore and protect motivations following shame. *Cognition and Emotion*, 24(1), 111-127.
- De Hooge, I. E., Zeelenberg, M., & Breugelmans, S. M. (2011). What is moral about guilt? Acting "prosocially" at the disadvantage of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3), 462 - 473.
- Dutton, D. G. (2007). The complexities of domestic violence. *American Psychologist*, 62(7), 708-709.
- Follingstad, D. R., Rutledge, L. L., Berg, B. J., Huase, E. S., & Polek, D. S. (1990). The role of emotional abuse in physically abusive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Violence*, 5(2), 107-120.
- Graham, C. (2005). The preconscious and psychic change in Fairbairn's model of mind.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86(1),

- 61-77.
- Graham, L. K. (1994). Care of persons, care of world. Naahville: Abingdon Press.
- Graves, K. N., Sechrist, S. M., White, J. W., & Paradise, M. J. (2005).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ed by college women within the context of a history of victimiz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9(3), 278-289.
- Handsel, V. A. (2007). *Psychological variables in battered women's stay/leave decision: risk-taking, perceived control, and optimistic bia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ilmington, Master Degree dissertation,
- Henderson, A. J. Z., Bartholomew, K., Trinke, S. J., & Kwong, M. J. (2005). When loving means hurting: An exploration of attachment and intimate abuse in a community sampl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0(4), 219-230.
- Henton, J., Cate, R., Koval, J., Lloyd, S., & Christopher, S. (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3), 467 - 482.
- Hines, D. A., & Saudino, K. J. (2003). Gender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physical, and sexual agg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using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Violence & Victims*, 18(2), 197-217.
- Jackson, S. M., Cram, F., & Seymour, F. W. (2000). Violence and sexual coercion in high school students'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5(1), 23-36.
- Karakurt, G., & Silver, K. E. (2013). Emotional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The role of gender and age. *Violence Victims*, 28(5), 804-821.
- Kasian, M., & Painter, S. L. (1992). Frequency and severity of psychological abuse in a dating popul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7(3), 350-364.
- Kaura, S. A., & Lohman, B. J. (2009) Does acceptability of violence imp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victimization, and commitment levels in emerging adult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4(6), 349-359.
- Kearns, J. N., & Fincham, F. D. (2005). Victim and perpetrator accounts of interpersonal transgressions: Self-serving or relationship-serving bias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3), 321-333.
- Kline, K. E. (2009). *Collegiate dating violence: A quantitative analysis of attachment style and help - seeking behavior by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Doctoral Degree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lden.
- Kuijpers K. F., van der Knaap, L. M., & Winkel, F. W. (2012). Risk of revictimization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role of attachment, anger and violent behavior of the victim. *Journal of Family Violence*, 27(1), 33-44.
- Kwong, M. J., Bartholomew, K., Henderson, A., & Trinke, S. J. (2003).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relationship viol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3), 288-301.
- Lewis, S. F., & Fremouw, W. (2000). Dating violence: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1), 105-127.
- Makepeace, J.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1), 97-102.

- McLewin, L. A., & Muller, R. T. (2006). Childhood trauma, imaginary companions, and had imaginary companions in childhood. *Psychological Reports, 107*(1), 163-172.
- Mertens, D. M., & McLaughlin, J. A. (1995). *Research methods in special education. Applied Social Research Methods Series* (Vol. 37). California, TO: SAGE Publication, Ins.
- Poling, J. N. (1999). *The abuse of power a theological problem*. United States Of America: Abingdon Press.
- Rhatigan, D. L., Shorey, R. C., Nathanson. A. M., & Alison. M. (2011). The impact of posttraumatic symptoms on women's commitment to a hypothetical violent relationship: A path analytic test of posttraumatic stress, depression, shame, and self-efficacy on investment model factor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3*(2), 181-191.
- Rusbult, C. E., Coolsen, M. K., Kirchner, J. L., & Clarke, J. A. (2006). Commitment. In A. L. Vangelisti & D. Perlman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pp.615-635). New York, NY, 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bina, C., & Straus, M. A. (2008). Polyvictimization by dating partners and mental health among U. S. College Students. *Violence and Victims, 23*(6), 667-682.
- Sable, M. R., Danis, F., Mauzy, D. L., & Gallagher, S. K. (2006). Barriers to reporting sexual assault for women and men: Perspective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5*(3), 157-162.
- Sackett, L. A., & Saunders, D. G. (1999). The impact of different forms of psychological abuse on battered women. *Violence and Victims, 14*(1), 1-13.
- Strark, E. (2007). *Coercive control: How men entrap women in personal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raus, M. A. (2004).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10*(7), 790-811.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Inc.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London: Sage.
- Teen Voice. (2006). *Dating violence power and control wheel*. Safe House Center.
- Vitanza S., Vogel L C M., & Marshall L L. (1995). Distress and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bused women. *Violence and Victims, 10*(1), 23 - 34.
- Walker, L. E. (2006). Battered woman syndrome empirical findings. *Walker: Battered Woman Syndrome, 1087*(1), 142-157.
- Walker, L. E. (2012). Battered women syndrome and self-defense. *Notre Dame Journal of Law, Ethics and Public Policy, 6*(2), 321-334.
- Weston, R. (2008). Insecure attachment mediates effects of partners' emotional abuse and

- violence on women's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 483-493.
- Widom, C. S. (2000). Childhood victimization:  
Early adversity, later psychopathology.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Journal*, 1(1), 1-8.
- Yarkovsky, N., & Timmons, F. P. A. (2013).  
Attachment style, early sexual intercourse, and  
dating aggression victimiz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9(2), 279-298.

원 고 접 수 일 : 2017. 01. 19

수정원고접수일 : 2017. 04. 01

게 재 결 정 일 : 2017. 05. 20

##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Innerness in Female Victims of Dating Violence

Kyungeun Park

Semyung University

Younggweon You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sychological changes in female victims of dating abuse as the violence escalates from psychological to physical and sexual. 19 women, with previous history of dating abuse were interviewed and their respons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grounded theory. 127 concepts, 51 subcategories and 21 upper categories were deducted via open category. Causal conditions included: 'weird,' 'embarrassing,' 'painfully pleasant,' and 'scared' were deducted. Contextual conditions included: 'awareness in dating' and 'acceptability to violence' were deducted. Central phenomenon was noted as 'experience of abnormal love.' For action/interaction strategy, 'facing,' 'stepping back,' 'looking for an alternative,' 'imagining,' 'remembering,' and 'severing' were deducted, and 'reminiscing,' 'relieving,' 'scared,' and 'nonchalant' were deducted. Through selective coding a total of 4 types were deducted. The types are categorized as 'accepting,' 'jealous,' 'terrified' and 'hopeless.'

*Key words* : dating abuse, female victims, psychological innerness, systematic perspective, interaction